

서 면 답 변 서

○나제암 의원

(질의요지)

- 동망봉 터널 내 인도 설치 요청에 대한 조치 없음
 - 터널로 인한 성북구와 종로 간 단절 관련
 - ※ 5분자유발언('09.2.25)
 - 이번 구청장 순례시 이것을 적극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음

(답 변)

- 의원님 지적 내용과 같이 동망봉 터널은 지하철 6호선 건설당시 보도설치 계획없이 도로계획선에 일치되게 설치된 곡선형 터널로 터널 배수를 위한 배수로(폭 0.75m)가 설치되어 있고
- 동 배수로를 이용 보수 및 점검 등 작업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원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보도 미설치로 시민들의 통행이 되지 않아 양쪽 지역간 단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시설물 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규모	준공일	구조형식	관리기관	비고
동망봉 터널	종로구 창신동~ 성북구 보문동	B=20m, L=482m	2002.12.31	BOX형	북부도로 교통사업소	

-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코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규정 및 구조적으로 보도 설치 가능여부를 종합적(보도상 쌍방향, 자전거 통행시 교행, 교통규제심의 등)으로 검토하여, 최소한 보도 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요지)

- 탑골공원 유지관리관련 노인 급식시설 철거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음

(답 변)

- 탑골공원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으며 노상 무료급식, 각종 공연·행사, 집회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1년 탑골공원 성지화사업 일환으로 탑골공원 주변 노상무료급식, 노점상 철거 등으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나,
 - ※ '01.4월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노상무료급식인원 흡수
- 탑골공원 무료급식 중단으로 탑골공원 이용 노인이 대부분 근처 종묘공원(199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으로 이동하여 노인들의 주모임장소로 급격히 부상하였으나, 2007년 종묘공원 성역화사업 추진으로 인근 3개 복지관내 실내 무료급식으로 전환(2007.7.1자)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의 노상 무료급식은 종결되었음
 - ※ 근거 : 종묘 앞 시민광장 정비대책(시장방침 제220호, '07.4.26)
- 단지, 탑골공원에 인접한 원각사(종로구 낙원동 220번지, 개인빌딩 2층에 월 240만원 월세)에서 자율적으로 무료급식기관을 운영하여 1일 평균 18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관할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현황 조사한 결과 자비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급식중단 요청 시 이용중인 수혜자들로부터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우려됨
 - ※ 지속적으로 관할 구·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하여 무료급식으로 인한 주변 환경 정비 조치 예정

(질의요지)

- 현안사업 진행시 사전에 지역의원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의원과 주민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토록 해주기 바람 (제21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무교동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사업' 관련 자료 제출

(답 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무교동 특화거리 관련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배경
 -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서울광장과 청계천을 잇는 무교동길을 걷기 편한 길로 조성하고, 해외자매도시 상징 도안을 보도상에 삽입하여 도시 간 우호증진
 - 사업개요
 - 사업명 : 무교동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 사업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청계천~서울광장)
 - 규모 : B=20m, L=300m
 - 사업비 : 2,230백만원
 - 사업내용
 - 보행환경 개선
 - ▷ 무교동길 차로축소(3→2차선) 및 보도확장(4m→7m)
 - ▷ 시설물 정비 : 시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된 표준형으로 교체
 - 글로벌 상징공간 조성
 - ▷ Foreign Community 광장 조성 (동민빌딩 앞 주차장 부지)
 - ▷ G-Gallery 조성 : 확장 보도상에 서울의 22개 해외자매도시 상징 도안 삽입
 - ▷ 아트벤치 설치 : 녹음과 예술이 조화된 쉼터 조성
 -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08.11.12 서울시 디자인심의 의결
 - '08.12.19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09.6. 공사 준공
-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려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추진시 관련자료 송부 등을 통해 관할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